

이슬람지역의 선교사역

조은중 (선교사)

예수전도단 간사이자 선교사, 독립교단선교단체연합회소속 목사이다. 26년 전 선교에 헌신하여 황소걸음으로 한걸음씩 흔들림 없이 심지를 굳게 하여 오늘도 우직하고 힘차게 걷고 있다. 선교 현지에서 태어난 2남1녀의 아빠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기독교심리전문가로 활약중인 현숙하고 지혜로운 한 여자의 남편으로 빨래하고 청소하며 살아간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모르면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치명적인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꼭 멈추어야 할 곳에 멈추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반대로 가해자가 되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중의 하나가 무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 약 17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전철 안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이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에게는 생을 지탱하는 5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고백(샤하다), 기도(살라트), 구제(자카트), 금식(사움), 성지순례(하지)입니다. 신앙고백(샤하다)은 “알라 외에 다

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기도(살라트)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며, 구제(자카트)는 의무적이나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며, 금식(사움)은 거룩한 달 라마단 기간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행하는 금식이며, 마지막인 성지 순례는 일생에 적어도 한번은 성지인 메카에 순례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매일 듣게 되는 기도로의 부름인 아단 혹은 아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언제나 기도를 시작하며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네 번 소리치는데 이것은 테리를 자행하며 외치는 소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알라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음을 증언한다.”라는 말과 이어서 “나는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

자임을 증언한다. 어서 나와 기도하라. 와서 구원 혹은 성공 받으라.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라마단이 올해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 까지 입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인 국제 YWAM에서는 1992년부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진행하는데 올해로 26주년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무슬림들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그들을 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당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십자군 전쟁에서처럼 싸우고 어린이이 까지 잔인하게 진멸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과 예수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삶과 종교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유 명절이 설과 추석이라면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30일의 금식이 끝나는 날 집집마다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해 속죄의 의미로 양을 잡는 고르반이라는 축제일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사부터 먹는 것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온통 무슬림 정신과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중국까지 무슬림들은 매일의 삶을 이슬람의 전통 속에 자신을 맡기는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가운데, 부모가 살아온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도 단언컨대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그들이 믿는 알라

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공동체에서 축출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은 알라 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도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으로서의 여자의 일생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무함마드도 여러 명의 여인들과 살았듯이 현대 무슬림 중에도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슬림 남자의 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까요? 그러 매우 어렵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역하는데 힘들 때도 많습니다. 무슬림 중에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에 누가 와 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도끼로 다리를 찍어버린다고 위협해서 신앙을 제대로 유지 못하기도 하고, 대학생 때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결혼의 시기에 앞으로 살아갈 삶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쏟아 부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때 사역자는 매우 힘듭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 소천하신 선교사도 많을 정도로 이슬람 사역이 쉽지 않지만 사역자로서 보람도 큼니다. 어렵고 척박하고 통제가 심한 사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힘든 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의 하나 됨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한국에 나와서도 정기적으로 모여 잠시 떠나온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결혼 전부터 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20



여년을 동일한 곳에서 함께 섬김은 놀라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고 풍요한 자유대한에서 떠나온 선교지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귀한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무슬림도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닐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도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커다란 자유 없는 감옥살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나름 웃고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대로 두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의아해집니다. 충분히 누리고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상이 가득했던 우리나라에 와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며 복음을 전한 귀한 섬김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주신 자유는 모든 이름위에 홀로 뛰어나신 만왕의 왕께서 보혈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고 그 효력이 천하만국 백성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며 사는 사람은 바울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행20:24)이 남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이슬람의 거짓에 매여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17억의 무슬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